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홍 석 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대문형무소’ 를 활용한
독립운동사 수업 모형 연구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박 수 진

‘서대문형무소’ 를 활용한
독립운동사 수업 모형 연구

홍 석 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박 수 진

인 준 서

박수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현재 교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역사 수업은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보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게 한다. 일반적인 역사 수업의 경우는 역사적 사건의 발생 년도와 사건의 전개 과정을 외우는 선에서 그치는데 이러한 수업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를 암기 교과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역사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목한 것이 바로 현장학습이다. 현장학습은 현장에서 답사, 견학, 관찰 등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한다. 현장학습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속의 역사와 실제 현장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생동감 있고,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현장학습은 학생들의 역사지식을 보완, 심화시키고 교실에서의 주입식 수업 형태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장학습이 갖는 교육적 효과에 주목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활용한 독립운동사 학습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 식민 통치의 저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배우고 감옥에서의 삶을 경험하기에 효과적인 현장학습의 장소라 하겠다.

우선 수업모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시설들과 전시물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분석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다. 역사전시관으로 이용 중인 보안과청사의 경우는 서대문형무소가 개소한 1908년 이래 80여년간의 역사가 도판을 통해 전시되어 있다. 지하에는 일

제강점기에 이용했던 고문실이 남아있어 관람객들이 고문을 간접 경험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시시설 외에 기타시설로는 중앙사와 옥사를 비롯해 공작사, 한센병사, 사형장 등이 있으며 이곳은 보안과청사와는 달리 전시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체험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다.

서대문형무소의 전시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관람 코스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 전달과 이해를 위한 현장강의 중심의 현장학습으로 ‘근대식 감옥의 역할과 식민통치의 특징’을 주제로 **보안과청사 → 중앙사 → 옥사 → 공작사 → 사형장 → 유관순 지하 감옥의 A코스** 모델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체험 중심의 현장학습으로 ‘독립운동가들의 감옥 생활’이란 주제로 **보안과청사 → 중앙사 → 옥사 → 사형장의 B코스** 모델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두 코스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본 연구의 수업모형을 강의식 학습과 체험 위주의 학습을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보안과청사 → 고문실 → 중앙사 → 옥사 → 사형장**의 수업 실행 코스로 관람 동선을 재조직해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현장학습모형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설문지를 통해 그 효과를 분석했다. 설문지는 흥미도·학습성취도·만족도의 세 분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현장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일반 전시실보다는 고문실이나 사형장과 같이 간접경험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에서 더 많은 자극을 받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학생들은 일제 식민통치의 폭력성에 분노와 공포를 나타내기도 했다. 교사는 학생들의 이러한 감정들을 심리적인 반응에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역사를 기억할 것인가’와 같이 역사의식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겠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서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데다가 재정비와 복원을 거쳐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있어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을 이해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현장학습은 현실적인 이유로 실행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활용한 현장학습이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목 차

논문 개요

I. 머리말	1
II. 서대문형무소 전시구성 분석	6
1. 역사전시관	6
2. 일반 건물 및 시설물	9
III.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현장학습 모형	12
1. 현장학습 모형의 개발	12
2. 교수 · 학습 과정안	21
3. 설문지 항목의 설정	26
IV. 현장학습의 실행 및 평가	28
1. 현장학습의 실행	28
2. 설문분석을 통한 수업결과 평가	31
V. 맺음말	38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 표 1 > 현장학습 교수 · 학습 과정안	23
< 표 2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의 현장학습 모형 적용의 실시	29
< 표 3 > 흥미도 문항 3. “서대문형무소가 어떠한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32
< 표 4 > 만족도 문항 15. “현장학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도 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	35
< 표 5 > 만족도 문항 16. “오늘의 안내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이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에 대한 응답	36

I. 머리말

현장학습은 자연·사회 현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현장에서 답사 혹은 견학, 면접, 조사와 관찰 등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한다. 학습자는 자연·사회 현상을 직접 접하며 다양한 자료를 선택해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관찰력과 비판적 안목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역사교육과정에서 현장학습은 수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다.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 형식에서 벗어나, 교과서 속의 역사와 실제 현장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좀 더 생동감 있고,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학습은 역사지식을 보완하고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입식 수업 형태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모형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현장학습이 갖는 교육적 효과에 주목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활용한 독립운동사 학습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독립운동사 학습을 연구 주제로 택한 이유는 일제강점기 역사가 갖는 교육적 의미 때문이다. 독립운동사는 수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당한 지배권력에 저항하며 치열하게 투쟁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한 운동에 대해 학습하며 학생들은 옳은 가치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다. 그리고 옳은 것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다.

독립운동사가 역사적·교육적으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이를 일정 부분 축소하여 다루고 있다. 누가, 왜, 어떻게 같은 질문을 던지며 그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역사적 사건의 명칭과 발생연도, 독립운동단체의 이름과 활동내용을 정리해 암

기시키는 형식적인 수업을 하고 있다. 현장학습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업방안이다. 학생들은 당시 사회와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현장학습을 통해 사회적 정의는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학생들에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독립운동사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대표적인 현장학습의 장소는 서대문형무소를 꼽을 수 있다. 서대문형무소는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 개소해 1987년까지 감옥의 역할을 수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감옥이다.¹⁾ 이곳은 ‘경성감옥’이란 이름으로 세워져 해방 이후까지 사용되는 동안 행형제도의 변화과정에 따라 수차례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곳에서는 근대식 감옥이 들어서기 전 조선 감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서대문형무소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변화했는지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서대문형무소를 통해 우리나라 근대 감옥의 제도와 사법·행형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 감옥’을 이해하는 현장학습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서대문형무소는 80여년간 감옥의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와 해방 이후의 민주화운동가 뿐만 아니라 각 시기의 일반 범죄인들 역시 이곳에 수감되었다. 80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한 서대문형무소지만 이곳은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가들의 저항을 대표하는 장소이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의병전쟁이나 3·1

1)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10월 21일 ‘경성감옥’으로 개소했다. 이후 1912년 마포 공덕동에 대규모 감옥이 신축되자 경성감옥은 ‘서대문감옥’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마포의 감옥을 ‘경성감옥’으로 칭하였다. 서대문감옥은 이후 1923년 5월 5일 ‘서대문형무소’로 바뀌어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식민지 감옥으로 운영되었다. 1945년 11월 21일 미군정하에서 ‘서울형무소’로 이름을 바뀌었지만 감옥의 기능은 유지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61년 형무제도가 교도제도로 바뀌면서 서울형무소의 명칭이 서울교도소로 변경되었다. 서울교도소의 기능이 미결수감자 수감 위주의 구치소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1967년 서울교도소의 명칭은 서울구치소로 바뀌었다. 서울구치소가 1987년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면서 이곳은 1998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재탄생했다. 이곳은 ‘경성감옥’으로 개소한 이래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었지만 현재까지도 ‘서대문형무소’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서대문형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운동, 6·10만세운동 등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제에 저항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투옥하기 위해 일제는 새로운 옥사를 신축했고 이를 계기로 서대문형무소의 면적은 더욱 확대되었다. 1930년 당시 전국 감옥에는 독립운동과 관련해 609만명이 수감되었는데 당시 조선인 총인구는 1878만 4437명이었다. 이를 환산하면 조선인 인구 3명 중 1명꼴로 형무소 생활을 했다는 결론에 이른다.²⁾ 전국 각지 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일제에 저항하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서대문형무소는 독립운동을 학습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경험하기에 효과적인 현장학습의 장소라 할 수 있다.

현장학습의 학습효과에 대해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역사교육과 관련한 현장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와 현장학습 활용 공간의 실태를 조사·분석한 연구, 지역 향토사와 연계한 현장학습 방안 연구가 있다. 그리고 서울 지역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로 서대문형무소를 다룬 연구³⁾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서울 시내의 전체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재개관하면서 전시 내용과 운영 프로그램이 바뀌어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현장학습의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한 학생들의 현장학습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을 통해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김삼웅,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 : 일제시대 편』, 나남, 2000, 295쪽

3) 신현실, 「서울지역 박물관 교육프로그램과 역사 교육의 활용」,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4)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2008년부터 일부 훼손된 옥사의 원형 보수·정비하고 왜곡된 경관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보안과청사 외형을 복원한 뒤 전시물 교체 정비 사업을 실시해 2010년 11월에 완료했다. 그 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같은 해 11월 5일에 재개관하였다.

이 글은 일단 우선 최근에 재정비 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전시물들과 구성을 분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여러 건물과 시설물들을 주제별로 엮어 어떤 코스를 구상할 수 있는지 일단 두 개의 관람코스를 예시로 제시하겠다. 한 코스는 역사적 사실 전달과 이해를 위한 현장강의에 주안점을 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험 위주의 역사 학습을 위한 코스이다. 이 두 관람코스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현장강의와 체험학습의 장점을 절충한 현장학습 수업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수업모형에서는 제시된 두 개의 관람코스를 절충하여 감시와 탄압이라는 일제강점기 식민정치의 특징과 이에 항거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현장학습 진행코스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현장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시설들과 전시물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독립운동사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현장학습모형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설문지를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해 볼 것이다.

현장학습모형의 대상자는 중학생으로 제한하였는데 그 이유는 일단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는 비율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를 사회 과목에서 국사 과목으로 분리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것도 중학생부터이다. 따라서 중학생들에게 현장학습을 통한 교육적 효과가 더욱 요구된다. 현장학습 모델의 적용과 설문조사는 2011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3개월 동안 이루어졌고, 이는 2~3주에 한 차례씩 진행하였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서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기에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 또한 재정비와 복원을 거쳐 그 원형이

잘 남아있는데다 그곳의 각종 유물과 자료들, 당시 상황을 재현한 모형들은 서대문형무소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현장학습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나 관심 역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활용한 역사체험학습이라든지, 현장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동선모형, 교과과정과 연계된 역사관 안내 설명 등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교과과정의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 이를 위한 효율적인 동선과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수업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다른 박물관이나 기념관에서도 현장학습을 위한 수업 방안으로 응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Ⅱ. 서대문형무소 전시구성 분석

1. 역사전시관

학생들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서게 되는 장소는 현재 역사전시관으로 사용 중인 (舊)보안과청사 건물이다. 보안과청사는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의 건물로 이곳에서는 서대문형무소의 역사와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항일운동과 관련된 각종 역사적 자료들을 관람할 수 있다.

보안과청사 건물 내 안내 동선을 따라 학생들이 처음 보게 되는 것은 20세기 초 제국주의 침략과정과 조선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전시관이다. 대개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전시 도판은 전시내용을 설명하는 텍스트와 이를 보조하는 자료로서 사진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안과청사의 도판은 텍스트가 아닌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을 적극 활용한 이것은 역사적 배경을 텍스트로 설명하고 안내할 경우 관람객이 이를 어렵게 생각해 눈여겨 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잡한 내용을 사진을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쉽고 간결하게 전체적인 맥락을 전달하려는 전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곳의 전시는 여느 전시 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진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진을 활용한 전시 구성이 관람객들의 집중도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학습 과정에서 배경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이곳에 처음 들어섰을 경우, 학생들 스스로가 사진들을 보면서 20세기 초 제국주의 침략과정과 조선의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기란 역부족이

다. 따라서 보안과청사의 전시구성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역사와 식민통치의 진행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안내자 없이는 효과적으로 관람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안내자 없이 방문하거나, 현장학습이 체계적인 동선 안에서 운영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전시 구성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이야기(Story)’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안과청사 전시물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변화과정이나 서대문형무소의 변천사, 시기별 독립운동의 양상과 특징에 대한 것인데, 이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관람했을 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다시 말해 이곳의 전시 내용은 일정한 순서와 동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관람객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특히 안내자가 없을 경우, 대부분 전시물들을 자유롭게 오가며 관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현장학습의 경우 체계적인 동선을 미리 계획하지 않는 한, 학생들이 교과과정을 통해 배운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상적인 사진들과 전시물들만 산발적으로 기억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보안과청사의 전시를 하나로 엮어서 관람객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또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그 전시내용의 수준과 관람 형식이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역사지식이 부족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안과청사만 하더라도 복잡한 역사적 내용이 길게 설명된 전시판이 대부분이고, 전시물을 안내하는 내용 역시 전문적인 학술용어를 사용하거나, 배경지식 없이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내 프로그램⁵⁾을 이용하거나 부모님 혹은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과 함께 관람하지 않는 한, 이곳을 방문

5)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는 한국어·일본어·영어 도슨트가 상주하여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규 도슨트 프로그램 외에도 서울 KYC 평화길라잡이 소속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무료로 해설을 진행한다.

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전시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란 어렵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보안과청사의 전시 특성과 한계점을 볼 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한 관람객이 학생일 경우, 특히 이곳에서 현장학습이 이루어질 경우 이들을 인솔하는 교사나 안내자의 존재와 그 역할이 매우 강조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사나 안내자들이 학생들에게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 전체 맥락을 개괄해주고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설명해주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동선 운영과 지도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전시 내용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이야기’의 개발 역시도 필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보안과청사 전시 구성 중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보안과청사 지하에 있는 고문실의 전시 구성에 대한 문제이다. 2010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재개관되기 전까지 이곳 고문실은 형무소 수감자들이 고문당하고 취조 받는 당시의 상황을 사람의 모형을 통해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했었다. 그리고 이 전시방식은 “훌륭한 현장학습의 장이 되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왜냐하면 재현하고 있는 고문의 내용과 상황들이 자극적일뿐만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게 하기보다는 맹목적인 반일감정을 키우는데 치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⁶⁾ 결국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2010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재개관을 하면서 지하의 고문실은 잔인한 사진 자료나 고문 도구, 모형들을 최소화하였고 전에 비해 덜 자극적인 장소로 변화했다. 그러나 자극적이더라도 구체적인 고문의 방법과 내용을 사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당시 역사적 상황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

물론 일제 식민통치의 실상과 그 잔혹함을 고발하기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만큼 적합한 장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잔인한 내용의 사진 자료와 재현 모형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

6) 한홍구, 『한홍구와 함께 걷다(평화의 눈길로 돌아본 한국 현대사)』, 검동소, 2009, 120~122쪽

요하다고 본다. 또한 고문실에서 자행된 식민통치의 잔인했던 실상과 수난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전달하면 좋을 지에 대한 대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일반 건물 및 시설물

역사전시관인 보안과청사를 제외한 이외의 시설로는 중앙사와 옥사를 비롯해 공작사, 한센병사, 추모비, 사형장과 시구문, 유관순 지하감옥, 취사장 등이 있다. 보안과청사 건물이 주로 역사전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외의 기타 시설물들은 전시의 목적 보다는 체험공간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

중앙사의 경우 서대문형무소의 운영과 형무소 내에서의 의식주 생활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곳 전시의 특징은 형무소에서 직접 사용했던 식기와 의복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중앙사에 전시된 식기와 의복 말고도, 보안과청사에 있는 ‘용수’와 ‘망루 감시 의자’ 등이 있다. 이러한 유물들의 경우, 보존을 위해 보호막으로 막아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직접 만지고 체험해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이곳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유물들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관람객들은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과거 역사를 구체적으로 표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옥사의 경우는 현재 남아있는 많은 감방 공간이 비어있는 채로 대부분 잠겨 있다. 이를 관람객들에게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장으로 사용하거나, 사람모형을 이용해 수감자들의 생활을 재현하는 등 여러 전시 방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더군다나 옥사 안의 감방은 형무소 안에서 수감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곳에서

는 위급 상황을 알리는 ‘폐통’과 함께 대화의 용도로 비밀리에 사용된 ‘타벽통 보법’과 관련된 일화를 도판과 사람모형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어떠한 자세로 감방 안에서 앉아있었는지, 어떠한 옷을 입고 생활을 했는지, 비좁은 공간에서 잠은 또 어떻게 잤는지 등의 다양한 생활사를 제시한다면 옥사를 교육적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재개관된 이후 전시내용과 전시물들이 전체적으로 이전의 전시물보다 좀 더 보완되었고 구체화되었다. 이번에 새로 전시된 내용들 중 두드러지는 점은 옥사 외벽에 있던 화장실을 떼어낸 흔적과 독방(떡방)의 화장실 구조를 설명한 점이다. 3·1운동 이후 서대문형무소를 비롯한 전국의 감옥에는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기 위한 ‘떡방’이라 부르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다. 이불, 돗자리도 없는 차디찬 시멘트 바닥인 이곳은 심지어 변기도 없어서 방 한구석에 쇠죽통 모양의 흙을 파놓은 곳에 대소변을 보아야 했다.⁷⁾ 이곳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옥사 외벽에 남아있는 화장실의 흔적과 관련된 전시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화장실을 떼어내기 전의 형무소 모습을 현재 보안과청사에 있는 전시관에서만 볼 수 있을 뿐, 정작 관람객이 밖으로 나와 건물 밖 화장실의 흔적을 관람하게 되는 곳에서는 정작 그 곳의 이전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 없다. 만약 형무소의 변천과정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형무소 곳곳마다 사진자료를 적극 활용해 배치한다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⁸⁾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은 사형장을 지하고문실과 함께 가장 기억에 남는 곳

7) 김삼웅,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 : 일제시대 편』, 나남, 2000, 136쪽

8) 위 지적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현재 시정되어 화장실의 흔적과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는 도판을 옥사 외부에 설치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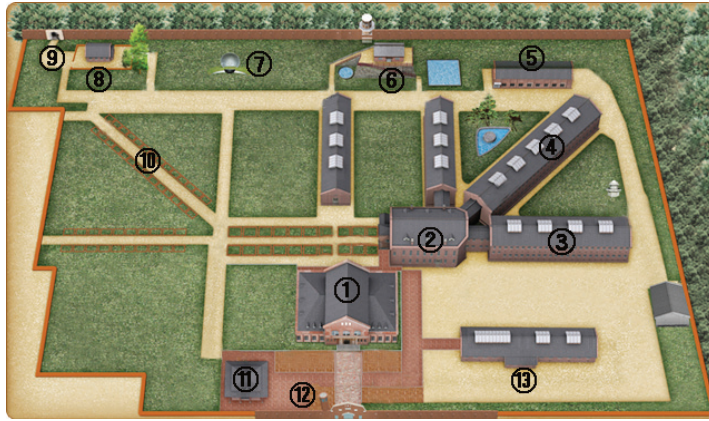
으로 꼽는다. 사실 이전에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사형장 내부의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사형장 내부를 잘 살펴볼 수 없었다. 그러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재개관 하면서 보안과청사 2층에 사형장의 지하 구조를 똑같이 재현해 놓아 관람객들이 사형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 사형장을 재현한 전시물에 직접 서 보기도 하고, 실제 사형장까지 걸어가 그 안을 보면서 관람객들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그 죽음을 느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체험은 현장학습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교육 효과이다. 지난 역사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학생들에게 자신 스스로를 대입시켜 생각해보게 하는 경험이야말로 역사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Ⅲ.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현장학습 모형

1. 현장학습 모형의 개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혹은 해방 이후의 민주화 운동, 형무소 내의 생활상 등 다양한 주제로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체험 활동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기를 구분해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이곳에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수감되었는지 비교하면서 학생들에게 역사적 배경을 학습시킬 수도 있고, 각 시기 수감자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면서 식민통치와 독재정치의 특성을 학습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주제로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내 시설과 전시물들을 살필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람 동선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제안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람 동선에 대해 알아본 뒤, 이 동선을 주제별로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제안하고 있는 관람 코스는 다음과 같다.



< 그림 1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기본 관람 동선

① 전시관 → ② 중앙사 → ③ 12옥사 → ④ 11옥사 → ⑤ 공작사 → ⑥ 한센병사 → ⑦ 순국선열추모비 → ⑧ 사형장과 ⑨ 시구문 → ⑩ 옥사 터와 붉은 벽돌길 → ⑪ 유관순 지하옥사 → ⑫ 담장과 망루 → ⑬ 취사장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안내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람 동선은 일제강점기의 서대문형무소에서부터 해방 이후 80여 년간의 역사를 개괄하고 있다. 이 동선은 관람객들에게 시기 구분 없이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에 용이하다.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관람 동선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학습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제 막 역사 과목을 배우기 시작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내용 전부를 전달하기에는 그 양이 많다. 또한 ‘제국주의’, ‘근대’, ‘사회주의 사상’ 등 기본적인 역사배경지식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아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동선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여러 건물과 시설물들을 주제별

로 엮어 어떤 코스를 구상할 수 있는지 그 예를 제시해 보겠다. 본 연구의 목적이 일제강점기 역사와 독립운동의 이해를 주제로 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현장학습 모형 개발이기 때문에, 이제 제시할 주제별 관람코스도 일제강점기로 시기를 한정했다.

처음에 제시할 관람코스(A코스 모델)는 근대식 감옥의 구조와 그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식민통치를 위해 서대문형무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학습한다. 주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면서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성격을 이해시키는 현장강의식 수업모형이다. 두 번째 관람코스(B코스 모델)는 독립운동가들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살펴보기 위한 코스이다. 당시 상황을 재현한 모형과 공간을 보여주면서 역사적 상상력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체험학습식 수업모형이다.

두 가지 수업 모형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두 모형을 절충해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현장학습의 수업모형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1) 근대식 감옥(서대문형무소)의 역할과 식민통치의 특징 (A코스 모델)

보안과청사 → 중앙사 → 옥사 → 공작사 → 사형장 → 유관순 지하 감옥

코스를 진행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서대문형무소가 설립된 배경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어야 하겠다. 1908년 통감부가 조선에 세운 경성감옥은 최초의 근대식 감옥이었다.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는 과정에서 그 저항이 매우 거세었기 때문에 폭력과 형벌로 억압하고 이후 격리시켜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경성감옥은 바로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이후 서대문형무소로 이름이 바뀌고 그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식민통치권력이 확대되고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사실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서대문형무소가 단순히 죄수를 격리시키는 감옥의 기능만을 수행한 곳이 아님을 설명해주어야 하겠다.

수감자들을 감시·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서대문형무소 내 건물들은 제각각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고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코스가 안내하고 있는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각 건물들의 기능과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교사는 이곳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는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감시’·‘처벌’·‘통제’로 요약할 수 있는 근대식 감옥의 특징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근대식 감옥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식민통치의 폭력과 억압성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을 것이다.⁹⁾

2) 독립운동가들의 감옥 생활 (B코스 모델)

보안과청사 - 중앙사 - 옥사 - 사형장

‘독립운동가들의 감옥 생활’이란 주제는 식민통치에 저항하다가 이곳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상황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지도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이 코스를 따라 이동하며 학생들은 수감자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을 보면서 서대문형무소의

9)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감옥을 중심으로 한 형벌제도의 변천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지배 권력이 어떤 방식을 통해 유지되고 강화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는 ‘판옵티콘’의 구조를 분석하며,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처벌의 시선 속에서 나중에는 감시당하는 자 스스로가 그 규율을 내면화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서 볼 때 근대사회란 곧 감금사회·관리사회·처벌사회·감시사회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라고 그는 규정했다. 푸코가 지적한대로 서대문형무소의 구조와 운영 역시 일제에 의해 식민통치권력을 확대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식민지조선의 경우는 근대 국가권력이 갖는 억압성에 폭력적인 식민통치가 혼합된 양상을 띄고 있다. 일제는 식민지조선에 근대 국가적인 요소의 적용과 함께 태형과 같은 폭력적이고 전근대적인 요소도 함께 적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삶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서대문형무소 수감자들의 생활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부당한 모순 앞에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등의 질문을 던지며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이 현장학습 모형 연구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전시관람 코스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근대식 감옥(서대문형무소)의 역할과 식민통치의 특징’이란 주제를 다룬 첫 번째 전시관람 코스의 경우, 식민통치의 성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감시와 통제, 체벌과 억압을 통해 지배 권력이 유지된다는 구조주의적 시각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특징과 그 시기 역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근대 사회의 등장, 제국주의의 확대, 세계전쟁의 발발 등 좀 더 심화된 역사적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때문에 첫 번째 전시관람 동선을 진행하며 역사적 배경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출 경우, 학생들이 그 내용을 다소 어렵고 지루하게 여겨 현장학습의 흥미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전시관람 코스는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 과거를 유추하게 하고, 체험을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동선은 형무소 수감자들의 상황을 직접 체험해본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전시관람 동선의 각 장점을 살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절충해 새로운 현장학습의 모형(수업 실행 코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수업 실행 코스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에게 일제강점기와 서대문형무소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학습시키고, 동시에 현장방문을 통해 당시 역사와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수업모형의 목표이다.

보안과청사 - 고문실 - 중앙사 - 옥사 - 사형장

과거 간수들의 사무공간과 회의실, 취조실 등으로 사용되었던 보안과청사는 서대문형무소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도면에서도 가장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서대문형무소는 이곳을 중심으로 옥사 건물들이 각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런 위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곳은 수감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하고 통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곳이었다.

현재 보안과청사는 역사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람객들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이곳을 제일 처음 방문한다. 이곳에는 제국주의 침략과정과 을사조약, 서대문형무소의 설립과 변천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여러 사진들과 전시관이 구성되어 있다. 현장학습을 시작하기 전 지도교사는 보안과청사의 전시물과 전시 도판들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일본의 식민통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배경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현장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이 보고 듣고 학습하게 되는 내용들이 일제강점기라는 역사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음 살펴볼 보안과청사 지하의 취조실과 고문실은 식민통치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잔인한 고문을 행사한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서대문형무소를 통틀어 일제 식민통치의 폭력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비인간적인 만행이 자행되었던 고문실의 상황을 사진과 모

형 그리고 효과음으로 활용해 재현하는 것은, 당시 수감자들이 느꼈을 극한적인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관람객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자극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고문실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재개관하면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재현 모형들은 모두 철거된 상태이다. 때문에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과 당시 역사적 상황을 이해시키고 식민통치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어떤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는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장학습을 이끄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매우 몸이 아프거나 무서움을 느꼈을 때의 경험을 질문하며 고문실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고문을 받으며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의 증언을 담은 고문실 영상을 함께 보면서 ‘만일 내가 이 때 살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질 수 있다. 이처럼 고문실의 공간은 부당한 현실에 저항했던 독립운동가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역사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중앙사와 옥사는 근대감옥의 특징과 식민통치의 성격을 동시에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학생들이 간수와 수감자의 입장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서 현장강의수업과 체험수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우선 중앙사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들과 실행 가능한 체험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중앙사 건물은 간수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대기했던 곳으로 서대문형무소의 제 10, 11, 12 옥사가 연결되어 있다. 현재 중앙사에는 1937년 당시 서대문형무소의 운영조직과 직원배치현황을 알 수 있는 도판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일본인이 198명, 조선인이 14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치현황에서 중요 직급은 대체로 일본인이 장악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수의 조선인 직원이 서대문형무소에 있

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는 수감된 수많은 조선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일본인만이 아니라 조선인들 역시 담당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조선의 독립을 위해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조선인들 스스로가 일본의 식민통치에 순응하였기 때문에 그 지배 권력이 확대되고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줄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당시 모습을 설명한 전시판과 함께 수감자들이 입었던 수인복과 밥 찌는 틀¹⁰⁾을 전시하고 있다. 이 유물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인 의식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전시물이다. 실제 유물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학생들에게 이 유물이 어떻게 사용되었을지 우선 질문을 던진 뒤 상상하게 하면서 당시 상황을 유추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중앙사 다음으로 살펴보게 될 옥사는 이층 건물로, 중앙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옥사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 부채꼴 모양을 이루고 있다. 옥사 내 감방은 가운데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되어 있고, 복도 천장을 뚫어 철망 사이로 위층을 훤히 올려다 볼 수 있게 만들었다. 밖에서 감방 안을 들여다보기 위한 감시구는, 안에서는 밖을 살펴볼 수 없지만 밖에서는 항상 수감자들의 동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런 옥사의 모습을 이른바 판옵티콘¹¹⁾ 구조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데, 이 용어를 강조하기 보다는 옥사의 형태를 설명하면서 판옵티콘 구조의 특징과 효과가 어떤 것인지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학생들은 옥사의 천장 복도

10) 밥 찌는 틀의 경우 원통형의 틀에 등급별로 두께가 다른 나무판을 넣어 깊이를 다르게 조절한 후 밥을 배급하는 도구였다. 등급은 1등급에서 9(10)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형량과 노역의 강도에 따라 구분 지어졌다.

11) 판옵티콘(Panopticon)은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벤담이 고안한 원형감옥이다. 이 감옥은 중앙의 원형 감시탑에서 감시자가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은 채, 각 수용실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수용자는 감시자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시당하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와 감방 안을 오가며 간수의 시선과 수감자의 입장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감시자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수용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감시당하는 시선을 의식해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규율에 감시자가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옥사의 감방과 독방은 일부 개방되어 있어서 일반 관람객들이나 학생들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직접 당시 상황을 체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학생들은 옥사의 복도를 걸어가면서 수감자들을 감시하는 일본인 간수가 될 수도 있고, 감방 안에 들어가 수감 중인 독립운동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감시와 통제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 직접 느껴볼 수 있고, 체벌과 억압을 받는 상황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서로 다른 감방에 있는 수감자가 벽을 두드리며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을 사람모형을 활용해 재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람모형의 외형은 사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으로, 글이나 사진으로 설명한 수감자의 모습보다 훨씬 전달력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그 모형이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벽에 귀를 대고 벽을 두드리도록 한다거나, 실제 사용했던 암호체계를 설명해주면서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수감자의 생활상 일부를 체험하게 지도할 수 있다. 이는 체험을 통한 교육효과도 있지만 현장학습의 흥미 또한 높일 수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사형장이다. 이곳은 가장 강렬하게 역사적 긴장감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주제야말로 학생들에게 지난 역사와 오늘날, 과거 인물들과 현재 자신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강한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저항해 이곳 형무소에서 모진 수난을 겪다가 결국 사형을 당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학생들이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곳 입구에는 ‘통곡의 미루나무’ 라고 이름 붙여진 미루나무 한 그루가 있다. 독립운동가들이 사형장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 이 나무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과연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며, 모진 고문과 힘겨운 수감생활에도 굽히지 않았던 이유는 왜인지 대답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 각자가 그 대답을 위해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서대문형무소를 통한 현장학습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는 삶의 종결이라는 죽음의 현상적 정의를 넘어 역사적 의미가 된 그들의 죽음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인간이 역사 속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실현해야 하는 사회정의를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제시한 수업모형의 관람코스를 따라 이동하며 학생들은 수감자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을 보면서 서대문형무소의 삶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서대문형무소 수감자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사회정의를 무엇인지, 부당한 모순 앞에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등의 질문을 던지며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이 현장학습 모형 연구의 목표이기도 하다.

2. 교수 · 학습 과정안

본 연구의 현장학습 모형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구상한 것이다. 대상을 중학생으로 제한한 이유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관람객들을 분석해 볼 때 초 ·

중학교의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역사 과목을 사회과목에서 분리해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배분된 1차시 수업의 시간은 45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할 모형은 교실이 아닌 교외로 나가서 진행되는 현장학습임을 감안해, 최소 2차시 분량에서 최대 3차시 분량인 약 120분의 시간을 배정했다. 이는 각 건물로의 이동 시간을 비롯해 학습자들의 휴식시간까지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수업 중간 중간마다 휴식 시간을 주어 학습자의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대개 학교에서 진행하는 역사교육 현장학습은 박물관을 관람하거나 지역 내 문화유물과 유적지를 답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학생들을 인솔하는 현실적 문제 등의 이유로, 학생 개인이 직접 다녀와 보고서를 제출하는 수행평가나 수학여행 중 답사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그래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현장학습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고 해도, 정작 수업 진도에 쫓기는 교사나, 학기마다 중간·기말고사를 치러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현장학습은 부담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들로 실제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현장학습 모형을 적용하는 일은 실현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일요일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 안내 프로그램에 안내자로 참여해, 2~3주에 한 번씩 세 달 동안 이곳을 방문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현장학습 모형을 적용해 보았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의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였다. 먼저 주제와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현장학습 진행의 단계를 **도입 → 전개 → 정리**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간은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을 고려해 최대 3차시 수업분인 120분으로 설정하였다. 현장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관람동선과 학습목표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도입단계에 10분을 배분했다.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의 역사와 시기별 독립운동사를 비롯해 다양한 장소에서의 체험이 가능한 전개단계에는 95분의 시간을 배분했다. 구체적인 시간의 배분은 교수 - 학습 과정안에서 제시하겠다. 마지막으로 학습지 작성 및 현장학습 마무리 단계인 정리 단계에 15분을 배분하였다.

< 표 1 > 현장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대상	중학생	일시	연중 실시	장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주제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사 이해하기				
학습 목표	1. 서대문형무소의 역할과 식민통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서대문형무소에서의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내용			학습자료 및 유의점	시간
도입	1. 당일 현장학습 동선 및 학습 목표 안내 - 팸플릿이나 관람안내도를 보고 당일 현장학습의 동선(보안과청사 → 중앙사 → 옥사 → 사형장 → 유관순 지하 감옥)을 학습자에게 숙지시킨다. - 당일 현장학습의 주제와 목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상기시킨다. 2. 현장학습의 흥미 유발 - 서대문형무소의 담장과 망루 외벽에 남아있는 회색의 흔적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퀴즈를 통해 질문해 당일 현장학습의 흥미를 유발한다.			- 당일 현장학습에 대해 내용을 전달하고 관련 사항을 숙지할 수 있게끔 지도한다.	10분
전개	1. 자유와 평화를 향한 80년(1908~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형무소의 역사와 제국주의의 침략, 식민지화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 1930년대 서대문형무소의 건물 모형과 전시된 유물들을 보고 서대문형무소의 확장과 수감 인원의 증가에 대해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6년대의 서대문형무소의 건물 모형도를 제시한다. 	8분
<p>2. 시기별 독립운동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0년대 식민통치와 항일운동과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해 학습자에게 사실을 전달하며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 1920~30년대 식민통치의 변화와 이 시기 독립운동의 특징을 설명한다. - 역사를 왜 기억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학습자들에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질문을 받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전시관의 민족저항실 2를 활용한다. 	20분
<p>3. 지하 고문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이 이루어졌던 당시의 상황을 학습자에게 설명하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고문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고문 증언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증언에 참여해 주신 이병희 지사와 이규창 지사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애국지사에 대해 미리 숙지시킨다. -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신 독립운동가들의 고문 육성 증언 영상을 시청한다. - 고문도구인 벽관을 직접 체험해보기 앞서 역사 현장에서의 관람 예절에 대해 숙지시킨다. - 벽관을 비롯해 지하 고문실에 있는 시설들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게 유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병희 지사는 일제강점기에 수감된 여성독립운동가 중에서 현재 유일하게 살아계시며, 이규창 지사의 경우는 2005년에 서거하셨다. 	20분
<p>4. 일반 건물 및 시설물</p> <p>1) 중앙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무소의 운영조직을 설명하고 형무소에서의 		7분

	<p>의식주 생활을 전시되어 있는 유물과 사진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전달한다.</p> <p>2) 옥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와 통제를 위한 근대 감옥의 구조를 학습자들에게 설명하고 내용을 전달한다. - 독방(먹방)과 감방 안을 직접 들어가서 체험해보고 공간 안에서의 생활을 설명한다. 또한 생활상에 대해 학습자들 간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토론과 질의응답을 유도한다. - 패통과 감시구, 타벽통보법을 설명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p>3) 사형장과 시구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하고 사형제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고문과 사형에 의한 독립운동가들의 죽음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일제가 시구문을 만든 목적을 학습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p>4) 유관순 지하 감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순 열사에 대해 간단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일제가 지하 감옥을 만든 목적과 이후 철거하고 매립한 이후의 최근의 복원 과정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형무소 윽기던 날의 기록 그리고 그 역사』 안에 사진을 활용해 옥사의 구조와 옥사 안에서의 생활모습들을 제시한다. - 『서대문형무소 윽기던 날의 기록 그리고 그 역사』에서 사형장의 구조를 사진으로 보여준다. 	<p>15분</p> <p>10분</p> <p>10분</p>
<p>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형무소의 목적과 교훈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 기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질문하고 과거의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에 대해 질문한다. - 학습지를 작성하고 현장학습을 마무리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 활동 	<p>15분</p>

3. 설문지 항목의 설정

개발한 모형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현장 학습의 결과를 분석·검증하기 위해 사전에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이 설문지는 현장학습 모형을 적용한 이후 본 연구자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성했으며 수업에 참여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흥미도·학업성취도·만족도의 세 분야로 나누어 흥미도 7문항, 학업성취도 6문항, 만족도 6문항의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흥미도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는지 알아보려 했다. 그래서 이전에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방문 목적을 물었다. 그리고 교내외에서 실시 중인 현장학습의 참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일 년 동안의 역사, 예술문화, 스포츠, 과학 분야 등에서의 현장학습 참여 빈도와 현장학습 참여 장소에 관한 문항을 신고 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역사와 역사 과목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 문항을 실었다.

다음에는 수업의 이해도를 묻고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분야를 따로 제작했다.

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는지, 또한 수업 이후에도 서대문형무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몇 가지의 간단한 질문 문항을 작성했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의 사진을 제시해 누구인지를 묻거나, 격벽장 건물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건물구조의 특징과 쓰임을 묻는 질문을 실었다. 그리고 중앙사와 옥사의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 구조(관옵티콘 구조)에서 알 수 있는 건물의 기능에 대해서도 묻는 주관식 문항을 만들었다. 이 밖에 다른 주관식 문항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당했던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이 문항

은 일본식민통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작성하였다.

마지막에는 수업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만족도 분야 관련 설문을 제작했다. 먼저 본 연구자의 수업이 역사(역사과목)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는 문항을 실었다.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과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어서 두 시간 가까이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의 내용 무엇인지 물었고, 마찬가지로 기억에 남는 전시 내용이나 유물을 선정하게 했다. 이것은 어떤 방식의 수업 혹은 어느 주제가 가장 효과적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이어서, 앞으로 이러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운영된다면 참여할 의사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듣고 난 후 본 연구자의 수업을 평가하도록 하면서 효과적인 현장학습을 위한 개선점과 방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IV. 현장학습 모형의 실행 및 평가

1. 현장학습의 실행

현장학습이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본 연구의 개발한 현장학습 모형을 실제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대안으로 일요일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 안내 프로그램에 안내자로 참여해 현장학습 모형을 적용해 보았다.¹²⁾ 본 연구의 현장학습 모형은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2~3주 간격으로 총 5회 동안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안내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람객들에게 미리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밝히고 양해를 구한 다음 현장학습 모형을 적용하였다. 작성된 현장학습 모형에 따라 수업의 수준은 일반 중학생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설문지의 경우도 중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하여 조사·분석하였다.

12) 본 연구자는 2008년 11월부터 서울 KYC 평화길라잡이로 활동 중이며 자원봉사자로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일요일마다 정기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 표 2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의 현장학습 모형 적용의 실시

	날짜	시간	비고
1회	2011년 3월 13일 (일)	13 : 00 ~ 15 : 30	
2회	2011년 3월 26일 (토)	14 : 00 ~ 15 : 50	
3회	2011년 4월 3일 (일)	14 : 00 ~ 16 : 15	
4회	2011년 5월 15일 (일)	14 : 00 ~ 16 : 00	
5회	2011년 5월 22일 (일)	13 : 00 ~ 15 : 15	

본 연구의 현장학습 모형을 진행하며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 중에 하나는, 뚜렷한 텍스트 설명 없이 사진들만 제시해 놓은 보안과청사의 ‘제국주의 침략’ 도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였다. 이 부분은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조선에 확대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학생들 대다수는 이에 대한 설명을 지루하게 여겼다. 학생들의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자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나머지 역사적 배경 설명은 과감히 생략했다. 이후 2회차 수업모형 진행에서는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사진 자료들을 이용하는 쪽으로 방법을 바꾸었다. 그러자 학생들은 그나마 관심을 보이고 질문에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 반드시 설명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학생들의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후 3회 동안의 현장학습 모형의 실행·적용 과정에서도 기초적인 설명 이외의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했다.

지하 고문실의 경우에는 취조실이나 고문실에 사람 모형을 통해 고문의 방법을 재현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고문 피해자들의 육성 증언을 시청할 수 있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고문 도구들을 일부 전시하고 있다. 고문실에서 학생들은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고 영상에 집중하며 시청했다. 그러나 고문에 대한 설명과 영상 시청을 끝마치고 고문을 체험해볼

수 있는 현장으로 이동하자 수업 내내 진지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산만해졌다. 학생들이 고문 도구들을 앞에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고 연구자는 학생들을 다시 불러 보아 역사관에서의 관람 예절과 고문도구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숙지 시켜야만 했다.

학생들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지루해했다. 하지만 감방에 들어가 본다던지 간수의자에 앉아본다던지 하는 식으로 무언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소에서는 서로 순서를 다투며 적극적으로 해보길 원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장학습이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학습이 현장학습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는 설명의 방식으로만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학습지를 제작해 배포하거나 학생들에게 메모를 유도함으로써 수업에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현장학습 모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또 다른 사실은 학생들이 다른 어떤 장소에서 보다는 고문실과 사형장에서 많은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두 장소에서 가장 높은 반일 감정을 보이기도 했으며, 이 두 곳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고문실과 사형장이 학생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았던 이유는 이 장소가 일제의 폭력성과 억압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현장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내내 학생들은 일제 식민통치의 폭력성에 분노와 공포를 느꼈다. 이러한 감정은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공통된 심리적 반응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억압과 폭력의 역사를 대하며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심리적인 반응에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역사를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역사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야말로 현장학습이 지향해야 할 학습목표라고 본다.

현장학습은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교외에서 보낸다. 그래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이동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필히 고려해야만 한다. 학생들을 인솔해 이동하다보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해지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았다. 심지어 인솔 경로를 이탈을 하는 학생들도 생겨나 전체 학생들을 통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수업 진행 시간이 많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 설문 분석을 통한 수업 결과 평가

본 연구의 현장학습 수업모형은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5회 동안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실시했다. 본 모형의 수업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흥미도·학업성취도·만족도의 세 분야로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여 사전에 설문지를 제작해 현장학습 모형에 참여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흥미도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현장학습은 어떠한 곳으로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역사(역사 과목)에 대한 흥미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이전에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한 적이 있나”는 질문에 62%의 학생이 당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방문이 첫 방문이었다고 밝혔다. 역사관을 찾게 된 이유로는 가장 많은 38%의 학생이 학교 과제 때문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았다고 했으며, 뒤이어 부모님이나 친구의 권유로 방문했다는 대답이 33%, 역사에 흥미가 있어서 관심했다는 대답이 29%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사실들로 보아 학생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된 계기나 그 이유가 대체로 학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방문의 비율(38%)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실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역사 교육현장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서대문형무소가 어떠한 곳인지 알고 있냐”는 물음에 학생 중 76%가 “서대문형무소가 어떠한 곳인지 잘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 4% 정도만이 “서대문형무소가 어떠한 곳인지 잘은 모르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고 대답했으며, 20%는 “어떠한 곳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했다.

< 표 3 > 흥미도 문항 3.

“서대문형무소가 어떠한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항목	비율 (%)	인원 (명)
어떠한 곳인지 잘 알고 있었다	76 %	16 명
어떠한 곳인지 잘은 모르지만 들어본 적은 있었다	4 %	1 명
어떠한 곳인지 잘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었다	20 %	4 명

대체로 많은 학생이 서대문형무소가 어떠한 곳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관심이 서대문형무소를 실제 방문하는 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 10명 중 2~3명의 학생 비율로 서대문형무소가 어떠한 곳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을 보아, 역사교육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서대문형무소에 대해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현장학습의 장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학습의 내용과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일 년간 현장학습을 얼마나

다녀왔는지” 질문했고, 년 3~5회 라고 대답한 학생이 반 이상을(52%) 차지했다. 년 6~10회 이상의 다녀왔다는 대답을 학생들이 24%였지만, 년 1~2회라고 대답한 학생 비율 역시 이와 같은 24%였다. 현장학습을 다녀온 분야로는 역사관, 박물관, 유적지, 고궁 등의 역사 체험을 위한 활동이 46%로 가장 많았다.

역사(역사 과목)와 관련한 흥미도 조사에서는 85%의 학생이 역사를 매우 좋아하거나, 좋아한다고 대답했으며 5%의 학생만이 역사를 싫어한다고 대답했다.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다른 과목에 비해 점수가 잘 나온다 · 배울 때마다 새로운 걸 알게 된다 ·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역사를 싫어한다고 답한 학생들의 경우, 역사를 싫어하는 이유로 암기 위주의 수업 방식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 다음은 본 연구의 현장학습 수업모형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교사가 말하는 내용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었는지, 수업 이후 서대문형무소에 대해 얼마나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을 작성했다. 문항들은 역사적 사건의 발생년도를 묻는 질문부터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 주관식 질문까지 다양하게 작성되었다. “서대문형무소가 언제 세워졌는가”를 묻는 객관식 질문에 약 81%의 학생이 1908년이라는 답을 선택했다. 서대문형무소가 설립된 시기가 한일합방 조약이 체결된 1910년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이란 사실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현장학습 수업모형은 이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며 시작하였는데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아 서대문형무소가 설립된 역사적 배경 -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통치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서대문형무소의 시설물의 사진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용도를 묻는 주관식

질문과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제시한 뒤 이 인물이 누구인지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는 각각 67%와 76%의 비슷한 정답률을 보였다. 안중근 의사의 얼굴과 그 이름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대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100%의 가까운 정답률을 예상했지만, 이와 달리 정답률은 생각보다 저조했다. 더군다나 오답을 적어낸 학생들은 대체로 안중근과 안창호를 착각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역사수업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탐구수업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중앙사와 연결된 부채꼴 형태의 옥사, 즉 판옵티콘 구조의 옥사 사진을 제시하고 일제가 왜 이러한 구조로 감옥을 만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을 했다. 판옵티콘이라는 용어를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의 기능과 특징에 대한 수업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었다. 대답은 모두 주관식으로 작성하도록 했는데, 높은 오답률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 질문만큼은 100%의 정답률을 보였다. 판옵티콘 구조의 옥사건물의 특징을 묻는 이 질문은 현장학습을 통해 근대식 감옥의 성격(감시와 통제)이 적용된 서대문형무소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한 100%의 정답률은 본 현장학습모형의 수업 내용과 그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수업의 만족도와 관련한 문항이다. “오늘의 현장학습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대답이 90% 조금 도움이 되었다는 답이 10%로 모든 학생이 현장학습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학교 수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대답이 27%, “교과서에는 없는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대답은 36%,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대답이

23%, “전반적인 독립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대답이 14%였다.

< 표 4 > 만족도 문항 15.

“현장학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

항목	비율 (%)	인원 (명)
학교 수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7 %	6 명
교과서엔 없는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다	36 %	8 명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3 %	5 명
전반적인 독립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4 %	3 명
기타	-	-

“오늘의 수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었는가”를 7가지 문항을 제시해 물었다. 이를 응답비율이 높은 순으로 문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표 5 > 만족도 문항 16. “오늘의 안내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에 대한 응답

항목	비율 (%)	인원 (명)
고문과 고문실	27 %	6 명
독립운동가들의 생애와 삶	23 %	5 명
서대문형무소에서의 생활상	23 %	5 명
사형장과 사형제도	14 %	3 명
일제강점기의 전체적인 흐름	9 %	2 명
기억의 방식과 용서, 평화	4 %	1 명
일제강점기 당시의 일반 민중들의 삶	-	-
기타	-	-

많은 학생들이 고문실이나 사형장을 인상적인 장소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고문실과 사형장은 일제 식민통치의 폭력과 탄압적인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공간이기 때문이라도 본다. 또한 고통과 죽음은 다소 무겁고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고문실과 사형장에서의 체험이 학생들에게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문실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서대문형무소 안에서의 삶을 다룬 항목들이다. 이 항목들은 형무소의 수감자들, 특히 이곳에 투옥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수난을 겪었는지에 대해 학습시키고, 그들의 삶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전달한다는 본 현장학습의 목표이자 주제에 대한 것이었다. 본 항목들이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의 현장학습 모형이 그

목표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수업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현장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흥미도와 학업성취도, 수업의 만족도 부분을 분석해보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문 분석이 일반화되기엔 시행된 현장학습의 횟수와 설문에 참여한 학생의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시행된 현장학습은 총 5회이며 현장학습에 참여하고 설문에 참여한 중학생은 21명으로 설문 대상 표본 집단이 굉장히 적다. 또한 현장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는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과제 수행을 위해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직접 방문했다. 이 학생들이 일반적인 전체 중학생을 대신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현실적인 제약들로 현장학습 모형의 대상을 중학생으로 한정하면서, 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본 수업모형을 적용하지 못했다. 결국 적은 인원수로 본 연구의 수업모형을 진행하고 분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서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데다가 재정비와 복원을 거쳐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있다. 그래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활용한 본 연구의 현장학습 수업모형은 학교 역사수업방안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현장학습 수업 모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고, 학생들의 반응과 수업효과를 분석하여 현장학습 진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현장학습을 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V. 맺음말

역사교육에서 현장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적 효과는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감정이입과 체험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배우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역사적 상황을 자신과 연결시켜 생각하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서대문형무소를 활용한 현장학습은 학생들에게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활용한 현장학습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효과적인 독립운동사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수업모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시설들과 전시물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분석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다. 현재 역사전시관으로 이용 중인 보안과청사의 경우는 개항 이후부터 해방시기까지의 역사적 사실이 도판을 통해 전시되어 있다. 지하에는 일제강점기에 이용했던 고문실이 남아있어 관람객들이 고문을 간접 경험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시시설 외에 기타시설로는 중앙사와 옥사를 비롯해 공작사, 한센병사, 사형장 등이 있으며 이곳은 보안과청사와는 달리 전시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체험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강의 중심의 현장학습과 체험 중심의 현장학습 두 가지의 관람코스를 제안하고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했다. 그리고 두 모형을 서로 절충하고 보완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현장학습 수업모형을 새롭게 개발 적용해보고 설문문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우선 현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안내하는 일반 관람 동선이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해방 이후의 시기까지의 서대문형무소의 80여년의 역사를 개괄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관에서 제시하는 관람 동선을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수업에 적용할 경우 주제가 너무 크고 추상적이어서 형무소의 전체 내용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의 중심의 현장학습과 체험 중심의 현장학습의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보안과청사 → 중앙사 → 옥사 → 공작사 → 사형장 → 유관순 지하 감옥** 을 강의 중심의 A코스 모델과 **보안과청사 → 중앙사 → 옥사 → 사형장** 을 체험 중심의 B코스 모델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 두 코스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본 연구의 수업모형을 강의식 학습과 체험 위주의 학습을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보안과청사 → 고문실 → 중앙사 → 옥사 → 사형장** 의 수업 실행 코스로 관람 동선을 재조직해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개발한 모형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현장 학습의 결과를 분석·검증하기 위해 설문지를 제작했다.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흥미도·학업성취도·만족도의 세 분야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흥미도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현장학습은 어떠한 곳으로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는지, 역사에 대한 흥미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학업성취도 부분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을 했었는지, 수업에서 얻은 지식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만족도 부분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을 평가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음 본 연구자가 실시한 현장학습의 개선점을 찾고자 했다.

학생들은 일반 전시실 보다 고문실이나 사형장과 같이 간접경험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에서 더 많은 자극을 받았고, 호기심으로 가지고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학습의 체험을 통해 부당한 현실 속에서 과연 무엇이 사회 정의인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본 수업모형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전시물을 활용한 독립운동사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모형이지만 이를 확대 적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 모형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이외의 장소에서 독립운동사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따라서 대상자가 달라질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는 현재의 전시물을 이용하여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시물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활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삼웅,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 : 일제시대 편』, 나남, 2000
- 남정우, 「비관적 역사교과서 읽기를 위한 수업 모형 개발」, 『역사교육연구』 11, 역사교육학회, 2010
- 리영희, 나명순 저, 『서대문 형무소 : 옮기던 날의 기록 그리고 그 역사』, 열화당, 2008
-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20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구 서울구치소) 보존 및 활용계획」,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2009
- 신현실, 「서울지역 박물관 교육프로그램과 역사 교육의 활용」,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원윤경, 「영화를 활용한 중국사 수업 모형 : 학업 성취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10
- 이여진, 「역사교육 현장학습에 대한 연구 : 중국 수학여행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전국역사교사모임,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휴머니스트, 2003
-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2
- 한홍구, 『한홍구와 함께 걷다(평화의 눈길로 돌아본 한국 현대사)』, 검등소, 2009
- KBS 3.1절 특집다큐 - “서대문형무소” (2011.3.1 방영)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홈페이지
- http://www.sscmc.or.kr/newhistory/index_culture

ABSTRACT

Study on the learning model of the history of independence movement
by using 'Seodaemun Prison'

Park, Su-jin

Dept. of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Most of history classes in these days are a one-way lecture by teacher. Compared to classes with participation, a one-way lecture with the text makes students lose their interests in history. General history classes focus on memorizing the period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a historic event, which makes students regard a history class as a simple memoriter course.

In order to get over this limitation of a history class, we paid attention to a field trip. A field trip means learning which needs learner's active participation in a field with a tour, a exploration, a observation and etc. During a field trip, teacher is not a simple messenger. Teacher not only plays the role which links contents in the text with a real field, but also helps students to have a active learning. It can supplement students' history knowledge, deepen it, and maximize

the effect of education in that it can make up for the limitation of a instructor-led class.

This study is going to develop learning model by using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Seodaemun Prison is the representative place which symbolizes our struggle for independence, where students can learn about independence movement and experience a life in prison.

For the development of learning model, the analysis on how facilities and displays can be used is conducted. In the case of office which is used as a exhibit hall, history of the eighty years from 1908 when Seodaemun Prison opened is displayed in the panel. In the basement, there remains a torture chamber us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which is made use of as a torture experience chamber. Apart from a exhibit hall, there are a central office, prison, factory, office of leprosy, the place of execution, and etc. They are experiential place rather than exhibit hall.

This study suggests several courses based on the analysis of exhibition contents of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The subject of course A is he role of modern prison and characteristics of Japanese colonial rule. Here is course A ; the exhibit hall - a central office - prison - factory - the place of execution - underground prison of Yoo Kwan-Sun. The subject of course B is a life of independence fighter in the prison. Here is course B ; the exhibit hall - a central office - prison - the place of execution. After the analysis of pros and cons of both courses, main model of this study was organized in the complementary form of a experiential learning and a instructor-led

class. The field trip was performed along the main course ; the exhibit hall → the torture chamber → a central office → prison → the place of execution.

Finally, the field trip was carried out to th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effect of the field trip was analyzed by doing a survey. Questionnaires was composed of 3 areas ; interests, level of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During the field trip, students showed more interests and active attitude to use their imagination in the torture chamber, the place of execution where they can have indirect experience than in the exhibit hall. Some students showed their anger and fear against the violence of Japanese colonial rule. Instructor should make them not just stay in the state of anger and fear, but have more expanded thought such as 'how we will remember our history'

Because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is very assessable in that it is near downtown and comparatively remains well-maintained thanks to overhauls and restorations, it is very useful in learning the history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independence movement. But, it is true that a field trip is hard to be carried out because of practical problems. this study expects more field trips using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to be performed.

< 부록 1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방문 학생 대상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활용한 독립운동사 교육에 관한 연구와 보다 나은 안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해 준 내용은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짧게나마 여러분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 KYC 평화길라잡이 4기 및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 전공 박수진 올림

< 기본 인적 사항 >

1. 성별 : 남자() 여자()
2. 대상자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흥미도 문항

1. 오늘 이전에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2.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역사에 흥미가 있어서 ② 학교 과제 때문에
③ 부모님, 혹은 친구 등의 권유로 ④ 기타 ()

3. 서대문형무소가 어떠한 곳인지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나요?

- ① 어떠한 곳인지 잘 알고 있었다.
② 어떠한 곳인지 잘은 모르지만 들어본 적은 있었다.
③ 어떠한 곳인지 잘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었다.

3. 지난 일 년 동안 현장학습(역사, 예술문화, 스포츠, 과학 분야 등)을 몇 번이나 다녀왔나요?

- ① 1~2회 ② 3~5회 ③ 6~8회 이상 ④ 9회 이상

4. 지난 일 년 동안 다녀온 현장학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였나요? (중복 선택 가능)

- ① 역사 체험(역사관, 박물관, 유적지, 고궁 등)
② 예술 문화 체험(미술관, 뮤지컬, 음악회 관람 등)
③ 스포츠 활동 장소(야구장, 축구장 등)
④ 과학 체험 장소(과학관, 실험실, 식물원 등)
⑤ 기타(놀이공원, 봉사활동 등)

5. 역사(혹은 역사과목)를 좋아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한다. ② 좋아한다. ③ 보통이다. ④ 싫어한다. ⑤ 매우 싫어한다.

6. 역사과목을 좋아한다면/싫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업성취도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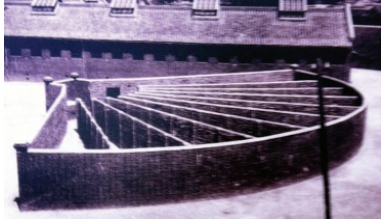
☺ 아래의 질문은 안내 이후 서대문 형무소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1. 서대문형무소는 언제 세워지게 되었나요?

- ① 1905년 ② 1906년 ③ 1907년 ④ 1908년 ⑤ 1910년

㉔ 아래의 사진을 보고 답해주세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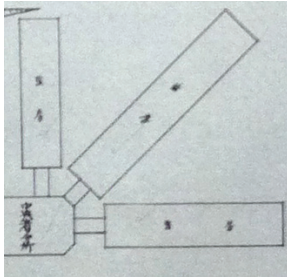
이곳은 어떠한 공간인가요? ()

3.



이 분은 누구일까요? ()

4. 다음은 서대문형무소의 구조(관옵티콘, 변형된 T자형의 구조)입니다.



일제는 왜 이러한 구조로 감옥을 만들었을까요?
()

5. 일제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고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6. 서대문형무소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가요?

※ 만족도 문항

7. 오늘의 수업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8. 도움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나요?

- ① 학교 수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② 교과서엔 없는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다.
- ③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④ 전반적인 독립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⑤ 기타 ()

9. 오늘의 수업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 ① 일제시대의 전체적인 흐름
- ② 독립운동가들의 생애와 삶
- ③ 일제시대 당시의 일반 민중들의 삶
- ④ 서대문형무소에서의 생활상
- ⑤ 고문과 고문실
- ⑥ 사형장과 사형제도
- ⑦ 기억의 방식과 용서, 평화
- ⑧ 기타()

10. 서대문형무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내용이나 유물 등이 있다면?

11. 이러한 현장학습 수업이 있다면 또 다시 참여할 생각이 있나요?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잘 모르겠다

12. 수업을 듣고 나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 부록 2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방문 학생 대상지 설문내용 분석

※ 흥미도 문항

1. 오늘 이전에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한 적이 있나요?

항목	비율 (%)	인원 (명)
있다	38 %	8 명
없다	62 %	13 명

2.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목	비율 (%)	인원 (명)
역사에 흥미가 있어서	29 %	6 명
학교 과제 때문에	38 %	8 명
부모님, 혹은 친구 등의 권유로	33 %	7 명
기타	-	-

3. 서대문형무소가 어떠한 곳인지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나요?

항목	비율 (%)	인원 (명)
어떠한 곳인지 잘 알고 있었다	76 %	16 명
어떠한 곳인지 잘은 모르지만 들어본 적은 있었다	4 %	1 명
어떠한 곳인지 잘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었다	20 %	4 명

4. 지난 일 년 동안 현장학습(역사, 예술문화, 스포츠, 과학 분야 등)을 몇 번이나 다녀왔나요?

항목	비율 (%)	인원 (명)
1 ~ 2회	24 %	5 명
3 ~ 5회	52 %	11 명
6 ~ 8회	10 %	2 명
9회 이상	14 %	3 명

5. 지난 일 년 동안 다녀온 현장학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였나요? (중복 선택 가능)

항목	비율 (%)	인원 (명)
역사 체험 (역사관, 박물관, 유적지, 고궁 등)	46 %	17 명
예술 문화 체험 (미술관, 뮤지컬, 음악회 관람 등)	16 %	6 명
스포츠 활동 장소 (야구장, 축구장 등)	2 %	1 명
과학 체험 장소 (과학관, 실험실, 식물원 등)	20 %	7 명
기타 (놀이공원, 봉사활동 등)	16 %	6 명

6. 역사(혹은 역사과목)를 좋아하십니까?

항목	비율 (%)	인원 (명)
매우 좋아한다	14 %	3 명
좋아한다	71 %	15 명
보통이다	10 %	2 명
싫어한다	5 %	1 명
매우 싫어한다	-	-

7. 역사(역사과목)를 좋아한다면/싫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관식 문항)

1) 좋아한다 : 재미있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점수가 잘 나온다, 배울 때마다 새로운 걸 알게 된다,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옛날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흥미롭다, 현재 우리가 살기 이전에 시대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과거를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고 민족의식을 느낄 수 있다.

2) 싫어한다 : 암기 할 내용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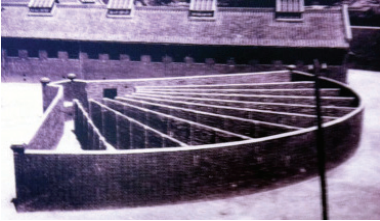
※ 학업성취도 문항

8. 서대문형무소는 언제 세워지게 되었나요?

항목	비율 (%)	인원 (명)
1905년	4.5 %	2명
1906년	-	-
1907년	-	-

1908년	81 %	17명
1910년	4.5 %	2명

9. 이곳은 어떠한 공간인가요? (격벽장, 운동을 하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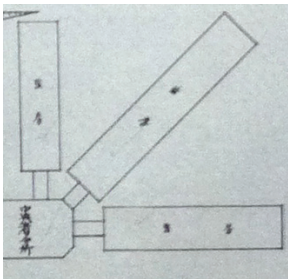
	비율 (%)	인원 (명)
정답	67 %	14 명
오답	33 %	7 명

10. 이 분은 누구일까요? (안중근 의사)



	비율 (%)	인원 (명)
정답	76 %	16 명
오답	24 %	5 명

11. 다음은 서대문형무소의 구조(판옵티콘, 변형된 T자형의 구조)입니다. 일제는 왜 이러한 구조로 감옥을 만들었을까요? (감시를 쉽게 하기 위해, 등등)



	비율 (%)	인원 (명)
정답	100 %	21 명
오답	-	-

12. 일제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고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 일제에 협조하라고, 일본이 원하는 대답을 얻고 싶어서, 3·1운동을 왜 했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려고, 의식을 바꾸기 위해, 중국과의 통로인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독립운동을 다시는 못하게 무섭게 하려고, 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을 죽여서 운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13. 서대문형무소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가요?

-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잘 알 수 있으니 꼭 가보라고 할 것이다, 신기하다, 서대문 형무소는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이곳은 우리 민족의 열이 담긴 곳이야, 이곳에서 있었던 일과 중요한 건물들, 어떤 고문을 했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 이곳에 수감되었던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생당한 슬픈 장소란다, 고마워 해야 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문 등은 일제시대 때 일본형사에 의한 영향이다. 고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 일제시대 일본인의 악랄함을 느낄 수 있는 곳,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을 당했던 곳이다, 민족의식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 만족도 문항

14. 오늘의 수업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항목	비율 (%)	인원 (명)
매우 도움이 되었다	90 %	19 명
조금 도움이 되었다	10 %	2 명
잘 모르겠다	-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15. 도움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나요? (중복 선택 가능)

항목	비율 (%)	인원 (명)
학교 수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7 %	6 명
교과서엔 없는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다	36 %	8 명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3 %	5 명
전반적인 독립운동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4 %	3 명
기타	-	-

16. 오늘의 수업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항목	비율 (%)	인원 (명)
일제강점기의 전체적인 흐름	9 %	2 명
독립운동가들의 생애와 삶	23 %	5 명
일제강점기 당시의 일반 민중들의 삶	-	-
서대문형무소에서의 생활상	23 %	5 명
고문과 고문실	27 %	6 명
사형장과 사형제도	14 %	3 명
기억의 방식과 용서, 평화	4 %	1 명
기타	-	-

17. 서대문형무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 내용이나 유물이 있다면? (주관식 문항)

항목	비율 (%)	인원 (명)
사형장	18 %	4 명
벽관	14 %	3 명
밥 찌는 틀	9 %	2 명
붉은 벽돌 길	9 %	2 명
고문실	9 %	2 명
기타(추모비, 호신용 지팡이, 옥사, 통곡의 미루나무, 독방, 나병사 등)	27 %	6 명
무응답	14 %	3 명

18.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 또 다시 실시된다면 다시 참여할 생각이 있나요?

항목	비율 (%)	인원 (명)
있다	91%	19 명
없다	-	-
잘 모르겠다	9%	2 명

19. 수업을 듣고 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학습지나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문실과 사형장이 너무 무서웠다,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어 이해하기 쉬웠다.